

# 대학생활과 바람직한 음주문화



윤혜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I. 90년대 대학과 술

흔히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5월을 또한 대학축제의 계절이다. 기성세대들은 대학축제하면 나름대로의 낭만적인 기억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신록과 봄꽃 그림자 아름다운 캠퍼스와 활기찬 젊은 남녀대학생들의 무리와 파트너를 구하려 동분서주하던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선택의 고민을 주던 다양한 세미나, 연극, 농악소리와 어둠속에서 활활 불타오르던 화롯불 사이로 비치던 마당극과 탈춤의 '얼쭈' 화답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추억을 가지고 요즈음의 대학축제를 방문한 사람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중앙도로에 즐비하게 늘어선 붉고 푸른 천막과 호객 소리, 코를 자극하는 안주 냄새와 무엇보다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 있는 맥주 박스, 소주박스, 막걸리 통들을 보고는 어리둥절할 것 같다.

기실, 90년대 대학축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점(酒店)' 촌의 설치가 아닌가 싶다. 축제시 주점설치운영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이 시대 대학생들의 축제문화인 듯 하다. 학생들은 축제기간 동안 과별로 혹은 동아리별로 이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권을 두고 추첨경쟁을 벌이기도 한다고 한다. 축제기간 동안은 수업을 각 학과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동동주 한 주전자 가운데 놓고 진행하자는 요청도 받게 되고 교수들이

### ■ 목 차 ■

- I. 90년대 대학과 술
- II. 대학생 음주실태
- III. 우리나라 대학 음주문화의 문제점
- IV. 대학내 건전음주문화의 확립

한두번쯤은 꼭 들러 격려 및 매상도 올려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학생들은 그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행사의 기금마련을 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어찌보면 좋은 의도에서 벌이는 낭만적 행사인 듯 하지만 학문의 전당인 대학 캠퍼스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열기설기 엮은 천막과 쌓여진 술병박스들, 주류 배달 차량들과 특히 숙취로 부은 얼굴과 초점 잃은 눈동자로 맥놓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편치만은 않은 마음으로 우리나라 대학에만 있는 이 독특한 축제문화는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된다.

캠퍼스를 '금주지역(No drinking zone)'으로 지정하기도 하는 외국인들에게 이런 광경은 너무나 생소한 모양이어서 필자가 알고 지내는 한 외국인 교수는 주점촌을 보고 '정치성향 강한 한국 학생들이 난민 정책에 대한 항의로 천막촌을 만들어 그 열악한 생활조건을 알리려고 데모하는 모양'이라고 분석하는 바람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적당히 넘어간 적이 있다. 확실히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축제문화이고, 또 이런 행사가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에 존재하는 나름대로 독특한 음주문화 때문일 것이다.

사실 대학과 술의 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관찰되는 현상이고, 일반적으로 사회는 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해 젊음과 패기와, 이상주의 등을 떠올리며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술이란 인간관계의 윤�활유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남자들 사이에서는 술 잘 마시는 것이 대인관계의 큰 재산쯤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기에 들어선 대학생들은 어른이 되기 위한, 남자다운 남자가 되기 위한, 그리고 요즈음은 평등한 남녀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 쪽으로 술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학의 음주문화를 젊은 시절 한 때의 낭만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현실인데 이는 음주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성격 때문이다. '잘 마시면 약, 잘못 마시면 독'이 되는 것이 술인데 올해 봄에만도 2명의 대학생이 술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다. 특히 신입생들의 신고식과 관련한 음주사고는 매해 되풀이되는 어이없는 비극으로 대학의 음주관행에 대한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매해 연례행사처럼 보도되는 잘못된 음주관행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사망과 사고, 그리고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피해들을 생각하면 이제 대학생활과 음주는 대학생 개인의 자기 통제에만 맡겨두기에는 문제가 심각하여 우리 대학의 음주실태와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II. 대학생 음주실태

우리나라는 세계 제5위의 술 소비국이며 성인 음주자 비율이 매우 높다. 더욱이 대학생 음주자 비율은 전체의 약 93%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과음과 폭음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며 음주로 인한 문제 또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생들의 반 이상이 상당한 수준의 음주자이며 음주의 빈도와 양이 많아질수록 음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에 관하여 관대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알콜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다. 특히 대학생들의 과음과 폭음은 청년기의 건강을 해치며, 생산적인 학습활동과 인간관계, 불의의 사고와의 연관 등으로 학교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도 가정에서도 학교당국에서도 별다른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들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주로 무슨 이유로 술을 마시는 것일까? 1997년 「한국 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협회」가 전국 14개 대학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음주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93%가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대학생 음주자 비율 88%와 비교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성인 음주자의 비율보다도 높은 비율이며 같은 또래의 근로청소년보다도 더 술을 많이 마시고 있다는 결과이다.

조사결과를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면 응답한 대학생들의 48%가 일주일에 1~2회 이상 술을 마시고 있으며 술을 마시면 전체의 67%가 2차 이상을 가고, 또 대부분(63%)이 1회 음주 소요시간으로 1~3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강의가 끝나는 오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1~3시간을 소비한다면 그날은 아마도 집에 돌아가 휴식하는 일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이와같은 음주행동은 잦은 결석과 학습부진등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라는 점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술로 인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낮술 마시고 강의듣기(35%)', '숙취로 인해 다음날 아침 수업 결석(46.3%)', '지각(57%)' 등의 문제에서부터 이로 인해 '성적에 지장(24%)을 받은 것' 등 학업관련문제가 가장 많고, '술 마신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탄 경험(44.4%)', '시비(19%)', '술로 인해 친구나 이성친구로 부터 비난 받는 일(29%)' 등 인간관계를 저해하고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음주관행에는 폭음이 광범

위하게 자리잡고 있어 마시기 시작하면 2차 이상을 가는 비율이 62%에 이르고 소위 말하는 '원샷', '사발주', '폭탄주' 등 비뚤어진 강제성 음주가 폭넓게 행해지고 있다.

그 결과 알콜 중독 판별의 한 지표인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한 대학생들도 4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음주행태가 그 정도와 빈도에 있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또 술과 관련해서는 성별의 차이가 크게 의미가 없어 여학생의 90%이상 이 음주자이고 음주빈도도 '한달에 수차례'가 47%, '일주일에 1~2회'도 15%나 되며 '대화에는 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정도는 덜하지만 술을 마시는 행동자체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하겠다.

여학생들의 음주행동에는 남녀평등을 빙자한 남자 동료들로부터의 압력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내 알코올 분해효소가 남성의 1/2밖에 안되는 자신들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과음은 모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위험한 성관계와 원치 않는 임신의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술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로 '모임의 분위기를 풀기 위해', '서로 친해지기 위해' 등 사교상의 이유를 들고 있고 이외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늘 그래왔으니까', '전통이니까' 등의 이미 이유라 할 수 없는 잘못된 음주 관행을 이유로 들고 있어 대학사회의 음주에 관한 맹목적 허용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좋은 일을 축하하기 위해' 라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와 같은 도구적 목적은 오히려 그 비율이 적어 음주자체를 목적화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Ⅲ. 우리나라 대학 음주문화의 문제점

술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물질이다. 술은 일(Work)에서 놀이(Play)로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 물질이다. 술은 사람들을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흐름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한가지는 일상성으로부터의 집단적인 이탈을 표시하는 것으로 축제나 특별한 행사에서의 음주이고 다른 한가지는 일상으로부터의 개인적 이탈로 직장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음주로 나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주로 관찰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

대학생들의 음주문화에서는 이 두가지 기능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데 저학년에서는 축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의 이탈을 위한 음주에서 시작하여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후자의 형태로 전이되는 것 같다. 집단회 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대학생 음주의 뚜렷한 유형이 한가지 떠오른다. 신입생 시절에는 일주일 내내 반강제적으로 선배들에 의해 술을 마시면서 대학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몰려다니게 되고 2학년이 되면 이제 역할이 전도되어 후배에게 술을 권하는 입장이 되어 술자리가 이어지고, 3학년쯤 되면 술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주중 한 번이라도 술 마실 기회가 없으면 서운한 느낌이 들면서 스스로 술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때 쬐이면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후회도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자각과 함께 많은 학생들이 과음으로 인해 '속을 버렸다'는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 4학년이 되면 불확실한 미래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손쉬운 해소책으로 술을 찾게 된다고 한다. 즉 초기의 '축제'적 성격의 이탈이 '개인적 이탈'로 전이되어 가

는 현상이 뚜렷이 관찰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사회에 나가서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심화된 경쟁의 압박에 대한 탈출구로 술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해 준다.

Bales는 특히 알코올에 대한 태도가 알코올 중독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는데 알코올에 대한 태도를 금주주의, 의례적인 태도, 연회적 태도, 실용주의적 태도의 4가지로 명명하고, 의례적 태도를 가진 유대교도들은 만취하는 경우가 드물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아일랜드 사람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유대교도들은 일찍이 문화속에 통합되고 알코올을 종교적 의식과 같은 상황에서 접하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아일랜드 음주자들은 그들이 당면한 부적응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음주를 택하기 때문에 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되고 이로 인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장승욱, 1997).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나 술을 대하는 태도가 아일랜드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세간의 지적은 대학생 음주와 관련하여 한 번쯤 음미해 볼 만 하다.

개인적 이탈로 이어지는 음주 이유 외에 음주행동에도 문제가 나타나는데 강제성, 목적성, 놀이성이 그것이다. '사발주', '폭탄주'가 상대의 주량과 관계없이 강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선후배 사이가 되면 선배의 권위에 눌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원샷'으로 해결해야 되는 관행이 팽배해 있다. 또 때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주량 겨루기'가 마치 호연지기의 대명사처럼 된다는가, 모든 행사에 술이 있어야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그릇된 신념, 심각한 이야기는 그 중요성 때문에, 일상적인 이야기는 그 가벼움 때문에 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적정한 선에서 통제가 이루어지

지 않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도록 마시는 것이 보통이다.

대학생 음주문화의 다른 한 특징은 알코올의 남용이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술기운으로 인해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도 취한 상태의 행동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로 관대하게 용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은 일부 대학생들이 일탈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술을 마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실제로 남자 살인범죄자의 42%가, 강간범죄자의 76%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김삼희, 1991), 교통사고 운전자의 30%가 음주상태였으며 외국의 경우 자살자의 1/3이 알콜남용과 관계있다는 통계를 생각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음주문화는

- 첫째 : 자주 술을 마시고(음주빈도)
- 둘째 : 폭음의 경향이 있으며(음주량),
- 셋째 : 1회음주에 소요하는 시간이 길며(음주시간),
- 넷째 : 강제성, 놀이성, 목적성이라는 잘못된 음주유형이 나타나고 있고(음주의 일탈적 형태),
- 다섯째 : 음주후의 일탈이 면책(관대성)된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잘못된 음주행동은 정신,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나 가정과 학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간접적으로는 2차적인 약물인 마약 남용으로 연결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고 도덕성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탈선으로 이어져 사회병리현상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 IV. 대학내 건전음주문화의 확립

대학생의 음주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이유는 대학시절의 음주수준이나 음주행동이 그 이후 그 사람의 음주수준이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적정음주를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 없는 음주자로 남아 있게 되며 현재 금주자 중의 높은 비율은 대학시절에도 금주자였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모든 대학생에게 금주주의자가 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우선 가능하지도 않고 또 술의 기능적인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학내의 '바람직한' 음주문화란 어떤 것일까? 물론 모든 대학생이 자기의 주량을 확실히 알고 적정한 선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통제를 잘 한다면 그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이 집단에 의해 휩쓸려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따라서 대학생 음주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문화적 요인이 알코올의 사용과 남용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알기 위해 음주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와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음주규범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정상음주와 문제음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성별, 지역별로도 다르다.

특히 대학생은 자아정체성 확립의 단계에 있어 아직도 불안한 측면이 있는 발달시기에 있어 동년배의 의견이나 문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연령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규범은 동년배집단의 알코올 소비량, 문화적으로 얼마나 분명하게 알코올 사용을 규제하는가, 그리고 술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불행히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동일시하는 동년배 집단의 음주문화나 우리 사회전반의 음주에 대한 태도는 과음과 그에 따른 일탈이 용서되는 관대한 태도, 알코올에 대

한 규제와 정확한 지식의 부재, 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믿음으로 관찰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대학생의 바람직한 음주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몇가지 규범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음주연령의 연기와 올바른 음주태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한 개인의 음주에 대한 관심은 대개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에 집중되지만 술과 음주에 대한 태도와 지식은 훨씬 일찍 형성된다. 많은 아동들이 그들이 정기적으로 술을 사용하기 전부터 부모나 친지들의 음주현장을 접하게 되지만 어린이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청소년기나 그 이후로 연기된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시작시기가 점점 빨라져 아동기 후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걱정스런 보고가 있다.

현재의 대학생들도 74%가 이미 대학에 오기 전에 음주를 시작했는데 대개 중학교 때 처음 술을 접해본 것으로 나타나고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정기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비율로 약 14%에 달해 대학생 음주문화의 저변에는 뿌리깊은 잘못된 음주행동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알코올처럼 초기단계의 경험이 그 사람의 그후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주도의 원칙인 '어른에게서 술을 배우는' 교육적 기회가 중요한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처음 술을 마신 상대가 친구였다고 지적하고 있어 잘못된 음주행동이 어려서부터 뿌리내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대가 부모는 '설마 내 자식이' 하는 생각에서 청소년 자녀의 음주사실 자체를 의심도 하지 않고, 그러므로 나아가 제대로 주도(酒道)를 가르치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대로 술을 마시는 예의를 배우지 못하고 일찍부터 음주를 시작할 때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新 酒道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술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술이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술에 대한 반응성의 차이, 술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음주량에 따른 영향, 술과 같이 해서는 안되는 약물, 몸을 보호하면서 술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에 관한 인지적 차원의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생들 자신들도 음주와 관련 '문제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조사에 응답한 대학생 중 35.4%가 술을 끊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학생들 스스로도 잘못된 음주행동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통감한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이지만 3명 중 1명 꼴로 단주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문제음주자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우며, 개입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대처수준은 매우 낮아서 대학까지의 제도 교육을 통해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에 관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대학은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연령에 적합한 알코올 교육이 정규교과로 편성되어 있고 음주문제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하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학생자조단체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합리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한데 술을 마실 때 서로의 주량이나 음주에 대한 신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회합이나 모임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위한 비알코올성

음료의 준비와 간헐적으로 회합자체를 'Non-alcoholic beverage meeting' 으로 규정하는 행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또한 술이 있어야만 서로 친해지고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서로 친밀해 질 수 있는 다양한 대학놀이문화와 회의문화가 개발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의식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넷째, 학교당국과 대학생 자치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알코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음주사고는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1년중 신입생활영회 → 수련회(M.T)등 과행사 → 동아리행사의 순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있어 학교측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축제 등 행사시에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생활상담소나 보건소에서 정보와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런 교육활동은 학교 당국 뿐 만 아니라 대학문화의 강점을 충분히 살려서 대학생

들 스스로가 자조집단 활동과 알코올 교육 또래 지도자(Peer leader)를 배출한다면 보다 효과적이 될 것이다.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술을 마신 친구가 운전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거나, 술을 마실 때 순번을 정해 한사람쯤은 비 알코올성 음료를 택해 동료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책임을 맡는다는가 하는 일이 한 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사회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교수와 직원, 기숙사, 그리고 대학촌의 주류판매업소를 통합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대학내에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음주환경의 정비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학내에 건전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의 음주 문화를 토론하고 음주에 관한 건전한 태도 변화를 꾀하도록 동료 대학생들을 교육, 홍보하는 교육자가 됨으로서 알콜문제를 예방하고, 리더쉽을 길러 음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책임감 있는 음주'를 하도록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There are three ingredients in the good life : learning,  
earning and yearning

훌륭한 삶에는 세가지 요소가 있다. 즉 배우는 일, 돈 버는 일,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

- Chistopher Morley -

## 唐詩 감상 / 王維의 詩

## 少年行

新豐의 맛난 술은  
 한 말에 萬錢인데  
 咸陽의 많은 소년  
 俠氣로 마구 논다.

서로 만난 意氣로써  
 그대 위해 마시노라.  
 말은 높은 다락 앞의  
 버들 밑에 매어 두고

新豐美酒斗十千  
 咸陽游俠多少年  
 相逢意氣爲君飲  
 繫馬高樓垂柳邊